

카메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1. 11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8
IV. 국제신인도	11
V. 종합의견	13

I. 일반개황

면적	475천 km ²	GDP	231억 달러
인구	19.96백만 명	1인당 GDP	1,159 달러
정치체제	공화제	통화단위	CFA Franc
대외정책	친서방 실리외교	환율(달러당)	495.28

- 아프리카 중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카메룬은 한반도의 2.2배에 달하는 국토와 2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는 나이지리아, 차드, 적도기니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가봉 등과 접경하고 있음.
- 산유국(일 산유량 6만 5천 배럴, 2010년 말 기준)으로서 석유산업이 재정 수입의 27%, 총수출의 40%를 차지하며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, 최근 산유량이 감소하고 있어 정부는 신규 성장 동력으로 보크사이트, 철광석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의 개발 및 산업다각화에 주력하고 있음.
- 2011년 10월 대선에서 폴 비야(Paul Biya) 대통령이 재선되어 1982년 이래의 장기집권 체제 하에서 정치적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, 정부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이 해결 과제로 남아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□ 2009년을 제외하고는 연 3% 내외의 경제성장률 기록

- 석유산업이 총수출의 40%, 재정수입의 27%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은 국제유가의 등락과 원유 및 가스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.
- 2005~0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, 정부의 소극적인 경제 인프라 투자와 열악한 기업환경에 따른 FDI 유입 부진 등으로 인해 연평균 3.3%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- 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제후퇴의 여파로 FDI 유입이 감소하고 원유, 목재 등 주요 수출품의 국제시세가 하락한데다, 원유 생산량도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2.0%로 하락하였으나, 2010년에는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3.2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2011년에는 산유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농업 육성, 광물자원 개발 및 인프라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하고, 농업 및 제조업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3.5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- 원유생산량 추이(천 배럴/일) : 84(2008년) → 73(2009년) → 65(2010년)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07	2008	2009	2010 ^e	2011 ^f
경제성장률	3.5	2.9	2.0	3.2	3.5
재정수지/GDP	5.3	4.8	3.0	-0.2	1.5
소비자물가상승률	0.9	5.3	3.0	1.3	2.6

자료: IMF 및 EIU.

□ 재정수지는 2010년의 소폭 적자에서 2011년에는 흑자로 전환 전망

- 재정수지는 2005년부터 정부가 IMF의 지원 하에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유가에 힘입어 원유 수출이 늘어나 2008년까지는 GDP 대비 연 평균 5%의 흑자를 기록하였음.
-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세 및 산유량 감소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흑자 폭이 GDP 대비 3%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소폭(GDP의 0.2%)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음.
- 2011년에는 10월의 대선을 의식한 정부가 석유 가격의 인상을 제한함에 따라 재정수입이 줄어들 것이나, 비원유부문의 수출확대로 인한 GDP의 증대로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고 흑자규모는 GDP 대비 1.5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소비자물가 안정세 지속

- 2000년대 중반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국제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,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연 2% 대의 상승률을 유지하였음.
- 2008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.3%까지 치솟았으나, 2009년 원자재 가격이 다소 안정됨에 따라 3%로 둔화되었음.
- 2010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상승 억제 노력에 힘입어 1.3%의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, 2011년에는 2.6%로 상승할 전망이다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취약한 인프라 등 열악한 기업환경

- 부족한 인프라, 미흡한 금융체계 등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하여 경제발전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음.

- 포장률이 10% 수준인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고, 매우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발전량은 1,000MW에 불과함.
- Doing Business의 기업환경지표에서 카메룬은 2011년에 183개국 중 168위를 기록하여 주변국인 가나(63위)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임. 이는 주로 높은 세율과 조세행정의 부정부패에 기인한 것으로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- 2011년 7월, IMF는 카메룬의 금융기관의 대출이 일부 부문에 크게 편중되어 있고 금융부문 자체가 미약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. 2010년 중반에 이웃나라인 가봉의 최대 은행인 국제프랑스가봉은행(BGFI)이 카메룬에 진출하는 등 경쟁체제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대상이 석유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민간산업으로 다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.

□ 석유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

- 경제는 총수출의 40%, 재정수입의 27%를 차지하는 석유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.
 - 일 산유량은 1985년에 18만 6천 배럴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말 6만 5천 배럴에 그쳤으며 추가로 유전이 발견되지 않는 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
- 농업은 인구의 49%가 종사하는 중요한 산업이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. 특히 지난 1960년 독립 이후 2007년까지 농업의 생산증가율은 연평균 1.6%인 반면, 인구증가율은 2.7%로 식량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.
 - 농업은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EU 시장 진출이 용이한 점 등이 강점이며, 주요 농산물로는 커피, 카카오, 담배, 바나나, 옥수수, 아리코, 사탕수수 등이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

- 보크사이트, 철광석, 주석, 희토류, 사파이어, 루비, 다이아몬드, 금, 폴리브덴을 포함하여 광물질과 광천수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, 상업적 개발이 가능한 광물자원은 약 50종으로 알려져 있음.
- 2011년 현재 마탭(Martap) 지역의 보크사이트 광산은 추정매장량이 약 10억 톤이며, 크리비(Kribi) 남부에서 매장량이 2억 톤에 달하는 철광석 광산이 발견됨.
- 석유를 제외하고 현재 상업적으로 채굴되고 있는 유일한 광물인 금은 콩고 및 중앙아프리카 국경지역 및 Adamoua 고원 지역에서 연간 1,000kg 정도가 채굴되고 있음.
- 아직도 전국토의 약 55%에 대한 자원분포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□ 서·중부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

- 두알라 항은 카메룬으로 유입되는 물류의 95%를 취급하고 있으며 내륙에 자리잡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차드 및 콩고공화국 북부로 연결되는 주요 교역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산업다각화 및 인프라 구축 노력

- 정부는 보건, 농업,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음.
- 2011년에 에너지수자원부 20%, 공공사업부 13.7%, 농업부 18%, 보건부 22% 등 관련부처의 예산을 각각 증액하였음.
- * 2009년 폴 비야(Paul Biya)대통령은 전력증산을 정부의 개발계획 중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였음.

- 농업 분야의 경우 2009년에 쌀, 옥수수 등 주곡과 기타 농산물 수입에 11억 달러(1994년 대비 7배 수준)가 소요되었으며 정부는 농업의 육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임.
 - 2010년 9월 브라질 정부와 협력, 유전적으로 개량된 코코아를 파종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연산 20만 톤인 생산량을 2015년까지 40만 톤으로 배가할 계획임.
- 인프라 분야의 경우 운송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한국의 컨소시엄(철도 시설공단, 교통연구원, 청석엔지니어링, 항만기술단 등으로 구성)이 수립 중인 철도 마스터 플랜이 2011년 중 완결될 예정이며, 추가로 철광석 운송철도의 최적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발주할 예정임.
- 또한 크리비(Kribi) 심해항만 개발사업(6억 1천만 달러의 자금 투입)의 1단계 사업을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임.
 - 철광석 등 광물자원 수출 부두, 차드-카메룬 송유관을 통한 차드산 원유 수출 부두, 컨테이너 수출입 및 환적 부두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동 사업으로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에너지 분야는 산업 및 가정의 전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가스 발전소 및 수력발전댐 건설, 에너지부문 개발프로그램 수립, 기존 인프라 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 현재 1,000MW 수준인 전력공급을 2020년까지 3,000MW로 증산할 계획임.

□ 'Vision 2035' 수립

- 2035년까지 신흥경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개발계획으로 'Vision 2035'를 2009년 초 발표하고 최초 10년간 실행계획으로 'GESP'(Growth and Employment Strategy Paper)를 채택하여 2020년까지 매년 5.5%의 성장 달성, 불완전고용까지 합할 경우 현재 70%(순수실업을 30% 수준)를 상회하는 실업률을 50%로 감소, 빈곤율을 39.9%(2007년 기준)에서 28.7%로 축소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음.

3. 대외거래

□ 경상·상품수지는 최근 적자 지속

○ 상품수지는 2006~08년에 원유 및 식료품의 국제 가격 상승세의 영향으로 석유와 코코아 등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흑자를 기록하였으나, 2009년에 국제유가의 하락세, 원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25% 감소함에 따라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음. 2010년에는 쌀·옥수수 등 주곡과 소비재의 수입액이 늘어났으나, 주요 수출품인 석유, 목재, 면화 등 원자재 등의 국제시세가 상승하여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축소된 1억 8천만 달러로 추정됨.

○ 서비스수지가 만성적 적자인 가운데 경상수지도 2008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에 1.9%에서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5%로 확대되었으며, 2010년에는 3.7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 2011년에도 산유량 감소가 예상되나 비원유 부문의 수출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된 2.9%로 전망됨.

- 상품수지: 4억 7천만 달러(2008) → -3억 9천만 달러(2009) → -1억 8천만 달러 (2010)
- 서비스수지: -3억 9천만 달러(2008) → -11억 9천만 달러(2009) → -5억 3천만 달러(2010)
- 소득수지: -3억 3천만 달러(2008) → -4억 8천만 달러(2009) → -2억 4천만 달러(2010)
- 경상이전수지: 6억 달러(2008) → 2억 8천만 달러(2009) → 1억 5천만 달러(2010)

□ 대규모 외채탕감 및 외환보유액 증가로 외채상환부담 크게 경감

○ 2006년 HIPC(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)의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여 대규모 외채 탕감을 받음으로써 2005년 73억 달러(GDP의 44%)에 달하던 외채규모는 2006년 32억 달러(GDP의 17.9%)로 대폭 감소한 이래 GDP 대비 약 13% 대를 유지하고 있음. D.S.R은 최근 7%대를 기록하고 있음.

○ 외환보유액은 국제유가 하락과 산유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원유 부문의 수출 증대로 2008년 31억 달러, 2009년 34억 달러, 2010년 36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7	2008	2009	2010 ^e	2011 ^f
경 상 수 지	286	-450	-1,119	-856	-771
경 상 수 지 / GDP	1.4	-1.9	-5.0	-3.7	-2.9
상 품 수 지	735	466	-389	-177	-244
수 출	4,956	5,890	4,170	4,485	5,669
수 입	4,221	5,424	4,559	4,663	5,913
외 환 보 유 액	2,901	3,081	3,430	3,614	4,208
총 외 채 잔 액	3,004	2,756	2,941	3,047	3,281
총 외 채 잔 액 / GDP	14.5	11.6	13.3	13.2	12.5
D S R	8.0	6.4	7.1	7.7	7.5

자료: IMF, EIU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폴 비야(Paul Biya) 대통령 29년째 장기 집권 중

- 1982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폴 비야 대통령은 2008년에 야당과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을 통과 시켰고 2011년 10월 대선에서 78%의 높은 지지율로 연임되었음.

□ 낮은 민주주의 수준

- 최근 EIU(Economist Intelligence Unit)가 발표한 2010년 민주주의 지표(Democracy Index)에 의하면, 카메룬은 총 167개국 중 126위를 차지하며 '권위주의 체제'로 분류되었음. 이는 주변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(30위) 등 여타 사하라이남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.
- 이는 선거철 마다 투표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선거위원회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함. 아울러 높은 문맹률, 빈곤 등으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가 매우 낮음.
- * 2009년에 카메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였음. 그러나 비야 대통령이 임명한 12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9명이 전직 정부, 여당 출신 인사들이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종족 및 종교세력 간 갈등 상존

- 카메룬은 다양한 종족(Highlanders족, Equatorial Bantu족, Kirdi족 등)과 종교 세력(토착종교, 기독교, 회교 등)으로 이루어진 국가임. 언어도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이기는 하나, 200여개 이상의 고유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등 종족·종교적 다양성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.
- 특히 유전 대부분이 밀집된 서부지역의 영어사용권 주민(Anglophone)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. 이들은 정부 요직에서 배제되고 석유개발 이익이 프랑스어사용권 주민(Francophone) 위주로 분배되는 것에 반발하여 국지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음.

□ 식량 폭동 발생

- 2008년 2월, 식량 및 연료 가격의 폭등과 폴 비야 대통령의 임기연장에 반발하는 폭동이 일어나 보안군과 시위대의 충돌로 100 여명이 사망함.

□ 인권개선은 지지부진

- 치안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비롯한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음.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감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감 시설 내 폭력으로 인해 구류기간 중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음. 특히 사법처리에 있어서 프랑코폰 및 앵글로폰 간 차별이 존재해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.

□ 바카시(Bakassi) 반도의 치안불안 지속

- 원유 및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바카시 반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1993년부터 나이지리아와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. 200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카메룬 정부가 영유권을 인정받고, 2008년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영유권이 반환되면서 갈등 국면이 해결되는 조짐을 보였음.
- 그러나 동 지역을 둘러싼 치안 불안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. 최근에는 인접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 중인 나이지리아인 무장 세력이 바카시 반도 반환에 불만을 표출하며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을 가하는 등 불안한 치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.
- 2008년 11월에는 바카시 반도 인근지역에서 프랑스 Total社가 채굴한 원유를 적재하던 인부 10명이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.

3. 국제관계

□ 주요 서방국가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

- 카메룬 정부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국가와 오랜 기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 특히 프랑스는 카메룬과 방위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카메룬의 최대 무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임.

- 미국과는 1990년 미국이 카메룬 내의 부패 및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카메룬이 소속된 중부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(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: CEMAC)의 회원국인 적도기니 및 차드의 석유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미국이 카메룬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향하게 되었음.
- 또한 비야 대통령은 자신의 장기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석유 및 광물자원 개발 요구에 부응하며 미국과의 협력강화를 추진 중임.
 - 미국과의 경제교류는 ExxonMobil 및 Chevron Texaco사에 의한 차드-카메룬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완공(2003년)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음.

□ 나이지리아와의 갈등 지속

- 바카시 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국민에 대한 기존 권리 보장 및 나이지리아 무장 세력의 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양국 간 갈등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외채누적으로 대규모 외채 탕감 경험

- 1990년대 정부 재정정책의 실패와 국제적 저유가 및 석유생산 감소로 인해 1998년 말 총외채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해 GDP 대비 100%를 초과함.
- 정부가 외채경감을 위해 HIPC Initiative 하에서 노력한 결과, 2006년 10월에 Completion point를 달성함. 이 외에도 파리클럽과 World Bank, IMF 및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MDRI(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)의 부채탕감 결정에 따라 GDP 대비 총 외채비율이 2006년 말 기준 18%로 급감하였음.

<표 4> 한 · 카메룬 교역 규모

단위: 천 달러

	2008	2009	2010	주요품목
수 출	44,169	32,288	48,175	알루미늄, 섬유제품 등
수 입	231,169	23,356	10,072	원유, 천연고무, 스테인리스 등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□ 해외직접투자(2011년 6월 말 누계, 총 투자 기준): 13건, 8,209천 달러

V. 종합 의견

- 카메룬은 산유국으로서 최근 고유가 추세에도 불구하고, 산유량 감소, 정부의 소극적인 경제 인프라 투자와 부진한 FDI 유입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연간 3% 대에 그쳐, 다양하고 풍부한 여타 광물자원의 적극적인 개발, 인프라 개선 등 산업다각화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음.
-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세수기반 확충 노력과 비원유부문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, 지속되는 산유량 감소로 석유산업(총수출의 40%, 재정수입의 27% 차지)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재정수지, 경상수지 등 제반 경제 지표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. 총 외채잔액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비중이 13%를 유지하고 있고 D.S.R도 7%대에 머물러 있어 단기간에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.
- 정치적으로는 29년째 집권하고 있는 폴 비야(Paul Biya) 대통령이 2011년에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나, 정부의 부정부패와 인권유린, 다양한 종족·종교세력 간 갈등 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남아있음.

조사역 박유정(☎02-3779-5727)
E-mail : yjpark@koreaexim.go.kr